

삼성전자, HBM 인력 재배치 차세대 제품개발 역량 집중

파운드리 부문, 직무전환 기회 제공
내부 혼란… 사업부 간 갈등 우려도
업계 “HBM4 주도권 위한 선택”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공략을 위해 내부 인력 재배치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설비, 제조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수시 잡포스팅’을 공지했다. 잡포스팅은 직원들에게 직무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사내 ‘프리에이전트·자유계약(FA)’ 제도의 일종이다.

이번 인력 모집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메모리제조기술센터는 ‘차세대 HBM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반도체연구소는 ‘HBM 및 패키징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은 ‘HBM 및 신제품 계측·분석·설비 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인력 충원을 공지했다.

애초 삼성전자는 일정 인원을 선별해 전환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차세대 제품 개발과 양산에 투입할 정

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일부 사업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파운드리 인력 일부가 메모리제조기술센터로 전환된 바 있어 HBM4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거센 추격이 있다. 현재 HBM 시장의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HBM3E(5세대 HBM) 제품을 공급 중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달리, 삼성전자는 발열 문제 등으로 HBM3E 품질 검증(켈 테스트)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앞선 데 달진 격으로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석결과 올해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가 34%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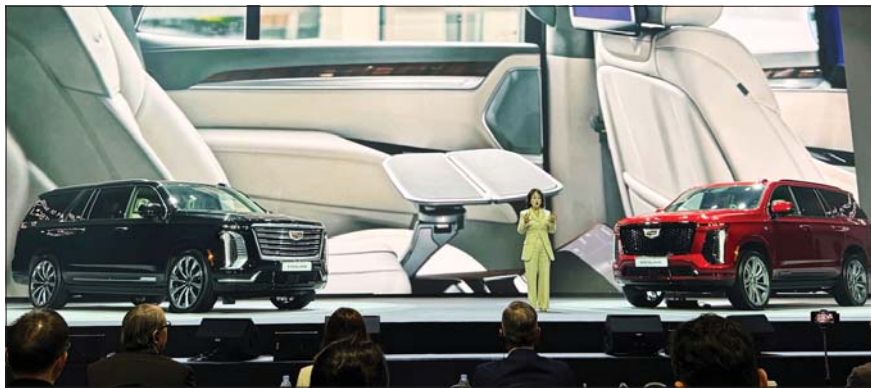
이에 삼성전자는 HBM4시장에서만 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HBM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크게 늘려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HBM4는 하반기 내 차질없이 개발해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선택을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HBM4는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곧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의 주도권과 직결된다”며 “HBM3E에서 뒤쳐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HBM4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경영진은 파운드리 가동률 저하로 생긴 여유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파운드리 사업부 내에서는 핵심 인재 유출로 기술 집중도가 저하해 TSMC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메모리 사업부로 일부 인력이 전환됐을 당시에도 파운드리 부문에 잔류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전언도 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파운드리 인력이 연쇄적으로 메모리 부문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되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라며 “메모리 사업부와 임금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이동이 계속되면 사업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16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명옥 한국GM 최고마케팅책임자가 캐딜락 대표 하는 럭셔리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에스컬레이드’를 소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더 뉴 에스컬레이드’ 국내 출시

캐딜락 4년만에 부분변경 모델 선보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

“에스컬레이드는 움직이는 럭셔리 라운지로 강력한 존재감으로 대신할 수 있다.”(윤명옥 한국GM 최고마케팅 책임자)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성공’의 상징으로 주목 받아온 캐딜락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가 4년 만에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캐딜락은 16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5세대 에스컬레이드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에스컬레이드’의 국내 공식 출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명옥 CMO는 “에스컬레이드는 성공에 이르는 완벽한 조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경쟁 모델은 없다”며 “출시 당일부터 많은 고객들이 계약을 진행하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며 럭셔리 풀사이즈 SUV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에스컬레이드는 이번 모델을 통해 디자인과 기술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화를 이뤘다.

/양성운 기자 ysw@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부분변경을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했다. 전면부에는 배경 조명이 적용된 ‘일루미네이티드 프론트 크레스트’와 수직형 LED 헤드램프가, 후면에는 길이 약 1m의 블레이드형 테일램프가 새롭게 적용됐다.

이는 캐딜락 전기차 라인업인 리릭(LYRIQ)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한 것으로, 야간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돋보인다. 외장 색상은 기존 블랙 레이븐, 크리스탈 화이트 트라이코트 외에 갤럭시 그레이 메탈릭, 아젠트 실버 메탈릭, 레디언트 레드 틴트코트 등 총 5가지로 확대됐다.

또 ‘움직이는 VIP 라운지’로 불릴 만큼 탑승자를 위한 배려가 세심하게 녹아 있다. 실내에는 VIP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 감성을 더했다. 2열 이그제큐티브 시트 패키지와 파워 오픈·클로즈도어 기능을 기본 적용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은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도 확보했다.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은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실린더 비활성화를 통해 연료 효율도 확보했다.

한화큐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제품 등 전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제품을 선보인다.

한화큐셀은 오는 23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

력 제품인 상업용 모듈과 인버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컨설팅, 영농형태양광, 방음벽태양광 등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설치 환경을 고려한 ▲영농형태양광 ▲방음벽태양광 제품도 유휴부지 활용 사례로써 실제 설치된 모습을 본따 전시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제네시스, 전동화 오프로더 SUV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 공개

우스 뉴욕’에서 전동화 오프로더 SUV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테드 멘지스 테제네시스 북미법인 COO(왼쪽부터), 재키 익스 제네시스 브랜드 파트너, 송민규 제네시스사업본부장 부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네시스

HD현대미포 액화이산화탄소선 진수

세계 최대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이 울산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진수됐다.

HD현대 조선 계열사인 HD현대미포는 최근 울산 본사에서 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한 진수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HD현대미포에서 진수된 선박은 2만2000㎥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선박은 ‘캐피탈 가스십 매니지먼트’사의 감리 하에 마무리 의장작업 및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말 인도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항균 등 기능성 소재 사업 속도

차이나플러스서 ‘퓨로텍’ 선보

LG전자가 항균 기능성 소재 ‘LG 퓨로텍(PuroTec)’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 간거래(B2B) 시장 확대에 나선다.

LG전자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지난 15일 개막한 ‘차이나플러스 2025’에 LG 퓨로텍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LG 퓨로텍은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 등 소재를 만들 때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변색 등을 막는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를 내는 기능성 소재다. 적은 양으로도 높은 항균 성능을

낼 수 있어 경제적이며 플라스틱, 섬유 등 다른 소재에 섞어 사용할 수기 때문에 범용성이 뛰어나다.

LG전자는 전시장 내 체험 공간과 별도 미팅룸을 마련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퓨로텍을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 가능 사례를 공유했다.

LG전자는 오는 10월에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에 열리는 ‘K-쇼’에도 참가해 유럽, 북미 등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